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노력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 미 경

- 1987년 11월 생
- 송의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4년 재학 중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고시계 국장님으로부터 합격기 원고 청탁을 받고 자리에 앉아 합격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고시를 준비한 2년여 간의 기간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 속을 스쳐갑니다. 제2차시험을 학교 고시반에서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뜻대로 나오질 않아 고시반 독서실이 있던 4층 여자화장실에서 누가 들을까봐 휴지로 입을 막으면서 울었던 시간 그리고 온 가족이 대성통곡하면서 기뻐하던 합격발표일까지...

고시 준비 기간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실력은 누구보다도 부족하였기에 합격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합격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그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조심스럽게 합격기를 써볼까 합니다.

II.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까지

1. 제1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보았던 수험서와 공부방법

민법 : 지원립 교수님저(이하 존칭 생략합니다) 민법강의

헌법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판례강의 헌법

형법 : 신호진 형법요론, 이용배 신체계 판례형법

노동법 : 김명수 객관식 노동법

수험서에 관하여는 참고사항으로만 봐두실 것을 권합니다. 백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백가지의 수험방법이 있듯이 어떤 수험서를 택하느냐, 택한 수험서를 어떻게 보느냐는 각자의 공부 스타일에 다르므로 어떤 수험서를 봐야 합격한다는 공식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험서를 보는 것이 체질상 맞지 않아 저에게 맞는 수험서를 택한 이후에는 그 수험서만 계속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민법같은 경우에는 지원립 교수님저 민법강의를 10회독 가까이 하고 시험을 쳤고, 판례집을 따로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민법강의안에 있는 판례만 잘 알아두어도 충분하겠다는 확신이 있어 판례집은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법강의에서 괄호 안에 있는 작은 글자의 판례까지도 다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1차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판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판례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권에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판례문제는 무조건 맞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과목에 걸쳐 판례는 모두 다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외워지는 판례는 연습장에 따로 필기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히 암기했습니다.

진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진모를 하였는지와 합격은 절대로 논리필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모를 해서 성적이 잘나오면 자만할 것 같고, 못나오면 좌절해서 시험을 못볼 것 같다는 알박한(?) 자기 합리화로 진모를 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저에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막바지에 이르러서 공부리듬이 흐트러진 분들은 진모를 하면서 최신 판례도 익히고 흐트러진 공부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진모를 안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제1차시험 당일

학교에서 동기들이나 선배들 중에는 제1차를 시험삼아 미리 쳐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처음 보는 제1차에서 바로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치는 제1차 시험 당일 굉장히 긴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평소 성격대로 시험 당일 극도로 예민해져있었고, 가족들에게도 굉장한 히스테리(?)를 부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런 극도의 긴장속에서 헌법 시험을 치렀는데 굉장히 빨리 풀려서 나름대로 고득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점 결과 민법보다도 못나와서 시험당시 체감난이도와 실제 채점결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헌법과 선택법인 노동법을 치르고 형법시간이었는데, 형법공부를 다소 소홀히 했었는지 시험지 앞부분의 문제는 확신을 갖고 풀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판례문제라도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에 판례문제가 포진해 있던 뒷부분을 다 풀고 나서야 앞부분의 학설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울고 싶은 마음으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1차시험을 치던 해에 민법이 상대적으로 타과목에 비해 어렵게 나왔고 형법이 쉽게 나왔다고 평가되던 해였던

데 전 참 특이하게도 민법에서 선방하고 형법에서 저득점하였습니다.

채점 결과 평균 82점이 나와서 제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III. 제2차시험에 합격하기까지

1. 제2차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보았던 수험서

민법 : 노재호저 민법교안

형법 : 이재상저 THE형법, 하태훈 형법 사례 연습

헌법 : 정회철저 사례, 단문 헌법 연습

행정법 : 홍정선저 행정법특강

상법 : 김혁봉저 상법신강

민소법 :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형소법 : 이재상저 신형사소송법

제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수험서 또는 이 강사를 선택하면 합격한다는 공식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수험서를 택하든 자신이 그것을 소화하기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적합한 수험서는 있기 마련인데, 그 수험서를 찾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비순환이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2차 수험서도 여러가지 보지 않고 한가지 수험서만 반복해서 보았는데, 사례집도 사긴 했지만 사례집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형법·헌법 정도입니다. 사례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게 2차 수험생에게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논점추출능력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사례집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기본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례집을 보았을 경우에 사례집 본래의 효용도 해칠 뿐만 아니라, 기본서 정리도 부실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사례집을 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훌륭한 사례집이 많지만, 하태훈 교수님의 형법사례연습 만큼은 꼭 한번 풀어볼 가치가 있는 사례집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례를 풀어나가는 논리적인 흐름이나 순서, 그리고 목차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사례집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2차수험방법에관하여

(1) 예비순환 기간

재학중인 다른 수험생들이 대부분 1차를 치루고 한 학기를 다닌 후에 1년을 휴학하고 제2차시험을 응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반면에 저는 아버지와 상의한 뒤에 바로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반을 내리 휴학을 하기로 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뒤에 한 결정이었는데 만약에 제2차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한학기만 휴학하고 1,2차를 모두 치러야하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동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2차시험에 떨어졌다면 수험생활 내내 제 발목을 붙잡았을 결정이 되었을 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학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숨 고르는 것도 좋지만, 휴학해서 집에서 에너지 충전도 하면서 예비순환을 천천히 준비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 역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같은 경우는 집(노량진)에서 가까운 신림동에 독서실을 잡아놓고 예비순환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비순환 공부를 하기보단 에너지 재충전에 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필기구를 찾는다면지, 자신에게 맞는 강사나 수험서를 선택하고 선택한 수험서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정도로 목표를 삼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순환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나중에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슬럼프도 일찍 올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1순환 기간

예비순환 시기를 숨고르는 정도로 보낸 탓에 초시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법만 면과하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과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올라(모든 과목 과락)해도 합격한 사람들은 많다는 얘기를 들어온 터라 초시성적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1순환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초시성적은 전혀 재시성적과 무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초시를 간과해서도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비순환때 신림동에서 스터디를 모집해서 판례암기스터디를 했었는데 판례집 하나를 정하여서 하루에 15개정도 암

기해은 뒤 모여서 20분정도 암기해은 판례를 답안지에 적는 스터디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시때 그나마 민법을 면과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스터디를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공부시간을 크게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판례암기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스터디였다고 생각합니다. 2순환부터 학교 고시반으로 옮기는 바람에 계속 할 순 없었지만 수험기간 내내 이어갔다면 더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제가 만약 다시 초시로 돌아간다면 현민형 정도는 하루에 사례 한두개를 꾸준히 풀면서 판례암기를 충실히 했을 것 같습니다.

1순환까지는 신림동에 있는 독서실을 잡고 공부했었는데 이 시기에 다른 수험생들과 다르게 특기할 부분이 있다면, 1순환까지 모의고사를 한번도 응시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변명(?)하자면, 모의고사를 풀 시간에 기본서 정리에 충실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확하게는 나태함과 귀차니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1순환때 한번도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2순환을 시작하기에 앞서 심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우들이 기본서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단권화를 해나가는 시기로 삼지만 저는 특이하게도 단권화를 하지도 않았고, 기본서 역시 위험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을 하며 읽었습니다. 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고, 소위 짜라시라고 불리는 것을 단권화하지도 않았습니 다. 말도 안되는 자신감에 기한 것은 아니었고, 공부를 혼자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서야 후회하긴 했지만, 돌이켜 보면 이 시기에 기본서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암기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공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공부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3) 2순환 기간

2차시험공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2순환 단계에는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집도 학교와 1분거리에 있는 원룸으로 옮겨서 외로운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가 2차 시험기간 동안 제일 열심히 하던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교 고시반에서는 반강제였던 스테디에도 들어가서 사례푸는 스테디를 하였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치러지는 고시반 모의고사도 빠지지 않고 응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시반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바로 교수님 출제, 교수님 강평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메리트가 있는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고시반 모의고사 덕분에 다양한 시험 유형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백지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고시반에 들어가 모의고

사를 풀고 성적이란 것을 받아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프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평균을 한참 밀도는 성적을 받을 때면 이 성적이 정말 실제 시험성적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혼자 운 적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만약에 불합격하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만 수험생활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중에 시험이 끝난 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후회는 하지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같은 시간들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고시가 아닌 다른 장래를 준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해당 진도만큼 기본서를 읽고 며칠 뒤에 모의고사를 치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고시반의 다른 학우들은 진도만큼 기본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저는 워낙 책을 빨리 읽는 데다가 예비순환, 1순환동안 시험을 치거나 사례집을 보지 않는 대신 기본서 회독 수를 늘린 탓에 진도를 못 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서를 일찍부터 강약조절을 해서 읽은 탓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지만 기본서에서 처음 보는 논점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럴 때는 불안감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실제 시험이 아닌 모의고사를 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하면서 그때 그때 암기했습니다.

(4) 3,4 순환 기간

이 때는 정말 시간이 그야말로 화살처럼 흐르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는 횟수도 많아지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더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워낙 몸이 좋지 못한 탓에 몸이 아파 목표한 공부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날도 많아지면서 심리적인 부담감과 불안감은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해서 몇날 몇일동안 쉬 수도 없이 그 다음날 또 바로 독서실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 중에 암기되지 않는 판례는 따로 정리해서 시간나는대로 틈틈히 암기했습니다. 남들과 별다른 공부방법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판례암기에 더욱 치중하면서 소위 A급 논점으로 꼽히는 논점들은 완벽하게 암기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시기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공부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는 체력관리나 컨디션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5) 5순환 기간과 2차 시험 당일

5순환은 고시반일정에 따라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 마무리를 해나갔는데, 시험과목 역순으로 기본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때 차트 계획이 무너지면 다음 과목까지 무너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더라도 계획에 따라 바로 다음 과목으로 넘

어갔습니다. 4,5순환에는 기본서정리에 바빠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고 시험을 치게 되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는 꼭 시간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그마저도 시간이 안된다면 하다못해 글씨라도 빨리 쓰는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2차를 치르는 4일 간은 정말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이었습니다. 소위 그 4일을 '지옥의 레이스'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지옥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시험 이틀 전부터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메스꺼워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자 너무 걱정이 되신 나머지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시험 전날 학교에서 노랑진까지 가서 침을 맞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안가려고 하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택시를 타고 노랑진에 가서 침을 맞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신 부모님께서 모두 자취방으로 오셔서 정성으로 간호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극도의 긴장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몸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2차시험기간이 월드컵 기간과 겹쳐 주변에서 들리는 함성소리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차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장 최악인 신체적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첫날 역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과목인 헌법을 보았는데, 시험에 압박해서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해보지 않고 시험을 맞게 된 터라 시간 조절도 실패한데다가 답안량 배분도 실패하여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헌법시험을 마쳤습니다. 헌법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건물밖을 나가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보았는데 정말 죄송한 심정에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렇게 헌법을 치르고 마지막 민법을 치르기까지 4일간 통틀어 밥을 먹은 양이 한 그릇이 못될 정도로 최악의 신체조건 속에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시험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마지막 과목인 민법을 치를 때는 머리가 맑지 못하고 어지러워서 어떻게 시험을 치렀는지 기억조차 안날 정도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일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시험기간에 정말 최악의 체력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신다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기타 사항에 관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글씨체에 관하여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쓰면 괜찮은데 속도를 내서 글씨를 쓰면 정말 악필인 케이스였습니다. 채점하시던 교수님 중에서는 저에게 글씨의 자모를 다시 배우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글씨체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

를 받은 탓에 글씨체 연습 교재도 사서 연습했지만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급해서 답안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게 되고 글씨체가 흐트러지는 것이 요인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역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했던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글씨체는 다시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던 내내 글씨체가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글씨체와 합불여부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상관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 일반인의 눈에 비추어 독해가 가능하다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독성이 없는 정도라면 반드시 글씨체 연습을 하실 것을 해드립니다.

답안작성요령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조문을 적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시다. 조문을 적시하는 것에 따로 점수가 배분되어 있진 않겠지만 답안 전체의 인상을 좋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선에서 조문을 적시하려고 노력했고, 조문은 되도록 목차에 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둘째, 판례는 원문 그대로 적시하려고 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모든 수험생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KEYWORD만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 설시 사항 자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원문 그대로 암기하고 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글씨체로 깎아버린 점수를 그나마 커버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IV. 마치며

써놓고 보니 주절주절 쓴 것은 많은데 과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험준비하는 동안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에도 합격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글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마한 희망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 수험기간 동안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수험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저의 합격을 고대하셨고, 재정적으로 힘든 사정을 아시고 말로 감사함을 다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을 주셨던 큰아버지...저에겐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반드시 쾌차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당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줬다면 합격 소식에 평평 우셨던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공부 뒷바라지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신 우리 아버지, 자기 공부를 포기해서라도 돈을 벌어 동생이 합격할때까지 뒷바라지하겠다는 우리 언니, 그리고 말없이 응원해준 동생까지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험기간 내내 힘들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는 조언을 해준 멘토 우중우빠 정말 감사해요. 오빠의 조언이 힘든 수험기간을 버티게 해 준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수험기간동안 같이 고생한 우리 스터디 식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해주고 합격소식에 자기일처럼 기뻐 해주던 안쑈,희은,보경 고맙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합격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험기간동안 한 고생은 고생 뒤에 맛보는 기쁨과 정비례합니다. 수험기간동안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합격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말처럼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